

아프리카·중남미 대학생 '한국을 느끼다'

전북대 초청 연수 성료... 5주간 전공 강의·실험실습·한국문화 체험 참여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지난달 9일부터 시작한 아프리카·중남미 대학생 초청 연수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난 10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전북대가 지난 2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2018 아프리카·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 사업' 아프리카 지역 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시행된 것. 강원대와 전남대, 동서대 등도 함께 선정돼 모두 각 대학 당 20명씩 80명의 학생이 한국에서의 연수 기회를 가졌다.

우간다를 비롯해 르완다, 모로코에서 온 생명공학 및 수의학 학부생 20명이 참여한 전북대는 이 학생들에게 동물생명공학과에서 전공 강의와 실험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전공 관련 산업체와 연구소 등을 방문해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 수업과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기간 내내 이어져 외국인 학생들에게 큰 만족감을 선물했다.

특히 이날 전북대에서 열린 수료식에서는 대학별로 참여한 8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연구결과 발표회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반을 다져 더욱 의미 있는 마침표가 됐다. 연수생을 대표해 우간다에서 온 요네 나벤드 오



전북대학교가 지난달 9일부터 시작한 아프리카·중남미 대학생 초청 연수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난 10일 수료식을 가졌다.

거티(Yvonne Nabende Woguiti) 요네 나벤드 오거티) 학생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높은 학문 분야와 산업 발전상을 몸소 체험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즐길 수 있어 매우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부 교육국제화 경쟁자 담당관은 "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세계 글로벌화에 기여하고 각자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서, 찾아가는 교통안전홍보 전개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교통관리과는 최근 인월면사무소 이장회의에 참석해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홍보에서는 연일 폭염으로 인한 불쾌지수 증가, 집중력·판단력 저하 및 장시간 차량 에어컨 작동으로 인한 졸음 운전 방지토록 메시지 환기를 당부하고, 특히 교통약자인 사발이 및 이륜차 운전자 상대 안전도 착용 및 안전운행(특히 비탈길 농로길 사고) 할 것을 강조했다.

한상호 경비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교통사고예방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 다문화 이해교육관 탐방 실시

사회복지법인삼동회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진원)에서는 지난 10일 선주민가정 청소년 5명과 이주민가정 청소년 5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관 탐방을 실시했다.

다문화이해교육관 탐방은 올해부터 선주민과 이주민의 유대강화 및 아시아 7개국의 문화 알아보기, 문화체험 등을 목표로 7월 14일부터 진행되었던 어울림 다문화이해교실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작은 이벤트로써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이해교육관의 작은 박물관, 의상체험관, 다문화이해교육관 3가지 체험장소에서 각 국의 전통가옥, 풍습, 식문화 등 전시관을 관람하고 전통의상체험을 해보며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총 10회기 중 4회기째 진행되고 있는 어울림 다문화이해교실은 키르기스스탄,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문화알아보기 및 문화체험을 5회기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154명 선발 최종 확정

(재)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유진섭, 이하 시민장학재단)이 지난 9일 정읍시청 대회의실(5층)에서 3차 이사회를 갖고 2018년도 장학생 154명을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인원은 고등학생 50명, 전문대학생 16명, 4년제 대학생 88명으로 총 154명이다.

고등학생은 50만원, 전문대학생은 150만원, 4년제 대학생은 180만원으로 총 지급액은 2억740만원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은 정읍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www.jsf.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정읍시청 대회의실(5층)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유시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시민장학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857명에게 22억8,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수도권에 '정읍장학숙'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고 올바른 야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최근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했다.

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산림 내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상업행위를 위한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행위,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및 반출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SNS 및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유명계곡으로 야영객들이 몰리면서 취사행위가 급증하여 주변 산림이 오염되고 훼손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이용객들의 깨끗한 산림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소방서, 특수교육지도사 대상 소방안전교육

정읍소방서(서장 김중수)는 최근 정읍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지도사 27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관내 특수교육지도사 직무연수 중인 27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화재·지진 발생 시 119신고방법 및 대피요령,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 기도폐쇄 응급처치(하임리히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단순 이론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옥내소화전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을 배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소방시설 등 주변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전용구역은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고,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적치, 노면 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되어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조용주 서장은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시민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